

# 대전지역 최고 경영자의 인적결속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이윤구<sup>1\*</sup>, 현병환<sup>2</sup>

<sup>1</sup>우송대학교 매니지먼트학부 경영학전공, <sup>2</sup>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컨설팅학과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anagement Performance on Human Solidarity of CEOs in Daejeon Area

Yoon-koo Lee<sup>1\*</sup>, Byung-hwan Hyun<sup>2</sup>

<sup>1</sup>School of Corporate Management Corporate Management Major, WooSong University

<sup>2</sup>Dept of Business Consulting, DaeJe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지역의 중소벤처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인적 결속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 기업경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 소재 중소 벤처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2018년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212개의 자료를 회수하여 SPSS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인 ‘직연’과 ‘학연’은 정부 과제확보, 경영개선, 기업성장에 필요한 정보획득,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지연’부분은 경영성과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전지역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첫째,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의 고도화가 요구되어 지고 둘째, ‘지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 간에 상호신뢰 구축의 노력이 필요하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강한 연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대전지역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각의 협회들은 최고 경영자들 간에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접촉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implications for Daejeon's business management by analyzing the impact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human solidarity among CEOs of small and medium venture companies in Daejeon. From 20th March to 20th May 2018, 212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CEOs of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in Daejeon for this study and verified using the SPSS statistics Analysis Program. As a result,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work" and "school" connection factors have positive effects on securing government projects, improving business management, acquir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business growth, and securing competitiveness in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On the other hand, the "Region or Kin-group" connection factor does not affect the management performance.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these studies on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of business in Daejeon. First, it requires a higher level of the CEO solidarity. Second, efforts aimed at building mutual trust among CEOs in Daejeon are needed to develop close relationships and strong connections. Third, each operating association established in Daejeon needs to develop various programs for building relationships among CEOs and operate programs to increase the chances of contact.

**Keywords** : CEO, Human solidarity, Work connection, School connection, Region or Kin-group connection, Small and medium venture companies, Mutual trust, Close relationship

---

이 연구는 2018년도 우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Yoon-Koo Lee(WooSong Univ.)

Tel: +82-42-630-4647 email: lyk43@hanmail.net

Received July 2, 2018

Revised (1st August 7, 2018, 2nd August 30, 2018)

Accepted October 5, 2018

Published October 31, 2018

## 1. 서론

대전지역에는 1974년부터 연구단지조성이 시작되었으며, 1997년 10월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전지역에도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벤처기업들이 처음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1997년 12월 14개의 벤처기업이 대덕연구단지 내에 창업을 시작으로 1998년 42개, 2000년에 66개의 벤처기업들이 창업되었으며[1], 이 시기에 중소기업청(현/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공립 교수와 연구원의 벤처기업 창업이나 경영참여시 3년간의 휴직을 허용하고 한편으로 스톡옵션 행사시 소득세 감면을 받는 대상을 사내 종업원에서 사외 전문 인력(대학교수, 출연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획기적인 창업정책 시행으로 대덕에는 많은 연구원들과 대학교수들이 벤처창업에 가세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파로 창업의 열기는 더욱 고조 되었으며, 때 마침 2005년도 대덕연구 개발특구의 설립으로 창업의 분위기는 더욱 확대 확산되어 2012년 12월까지 995개로 늘어났다[1].

이와 같이 1998년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이 시작되었지만 대부분의 창업기업들은 충분한 경영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이 이루어졌다. 부족한 경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벤처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외부활동을 통해 부족한 경영정보나 자원을 획득하고자 당시 구축된 다양한 사회적·인적 네트워크를 찾기 시작하였다. 대전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국내 타 지역보다 산·학·연·관의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고들 말한다. 그렇지만 1998년부터 약 20여년의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수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실패를 하여 산업현장에서 사라져 갔고, 또 새로운 창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대덕벤처기업 CEO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연구에서 대덕특구 내 벤처기업들은 각종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비율이 47.9%이고 나머지 52.1%는 클러스터 활동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거나 외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 연구원 및 교수창업의 붐을 고려할 때 대덕에는 직장연고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경력의 중첩관계가 형성되었고, 학연에서는 KAIST, 충남대, 한양대, 한밭대 등을 중심으로 학연이 형성되었다[2].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들이 경영성과(종업원 수/매출액에 한정)에 미

치는 관계를 입증하는 데는 미흡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덕특구에서 대전지역으로 확대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의 인적 결속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인 직연(전직의 직장연고), 학연(동문, 동창관계), 지연(지인, 혈연관계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논문을 고찰하고, 가설입증을 위해 분석모형을 설계한 후 통계적 절차를 거쳐 검증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토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으로 대전지역 중소벤처기업 최고경영자의 인적결속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결론과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최고경영자의 인적결속 개념

기업경영에 있어서 최고 경영자가 갖고 있는 인적 결속은 경영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인적 결속은 최고 경영자가 갖고 있는 개인적 특성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적 결속을 통해 최고 경영자의 인적자본이 형성된다고 본다. 인적자본은 개인적·사회적·경제적 복리의 창출을 촉진시키는, 개인 안에 내재된 지식·기능·능력을 의미한다[3-5]. 또한 인적자본을 지식, 능력, 기술의 통합능력으로도 정의하고 있다[6].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은 사내 또는 대외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의 공급 사슬을 연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6-7]. 최재필(2012)은 인적 결속을 위한 오프라인 네트워크 유형을 혈연 네트워크(family network), 지연 네트워크(region network), 학연 네트워크(school network), 사내 네트워크(intra-firm network), 사외 네트워크(extra-firm network)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8].

위의 구분 외에도 한국사회의 경우는 산업화 이후에도 비공식적 관계를 중심으로 강한 연결의 네트워크로 발전되고 있다고 한다[9]. 연고주의에 기초한 인적관계는 구성원들 간의 매우 긴밀한 연관성, 동질성, 친밀성, 소속감, 충성심을 강조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10].

따라서 연구주제는 조직구조나 조직구성원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가 내재하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에 의한 대외적인 활동과 연계된 범위 내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네트워크인 연구주의의 유형인 혈연, 지연, 학연, 직연, 업연을 근거로 하고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은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정부출연 및 대기업 연구기관의 연구원, KAIST를 비롯한 대전지역 대학의 교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임직원 출신 등의 창업자가 다수)하여 과거 동일직장에서의 연구 관계인 ‘직장연고’(이하 ‘직연/Work Connections’이라 한다)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동일 학교의 동창관계인 ‘학연/School Connections’, 그리고 직연과 학연을 제외한 혈연(가족관계), 친지, 지인, 친분 등의 관계를 갖게 되는 ‘지연/Region or Kin-group Connections’을 독립변수로 정의하고 3가지 요소들에 대한 선행논문을 연구하였다.

### 2.1.1 직장연고에 대한 선행논문 연구

직연은 전 직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대부분 기업의 CEO들은 이전 직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창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전 직장의 근무경험을 통해 연장선상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많은 Risk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전 직장에서 축적된 기술(제품)이나 업무 및 경영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경쟁자·공급자·고객 등의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대덕지역의 경우 기업들 간의 비공식 네트워킹 실태 조사 결과 340개 업체 중 67%가 이전의 직장관계를 통해 사회적 인적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2]. 그리고 대덕연구 개발특구의 전략적 클러스터링을 위한 워킹그룹 보고서에 의하면 대덕특구내의 직장관계(직장연계)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NA분석)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KT 등 주요 연구소 중심으로 전 직장의 경력 연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2].

이와 같은 직연은 기업경영 활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산업분야의 기회와 위협, 경쟁 및 규제 상황과 같은

중요한 요인을 경험상 사전에 인지할 수 있고 협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종전의 직장에서 근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직연이 중요시되는 점은 초기기업 CEO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이나 기술 등을 익히고, 역량을 강화해 가는 데 있어 혼자만의 힘으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직장경험은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다. 경험적 배경이 다른 경영자들에게 동일한 경영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을 때 각 경영자들은 자신의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적 배경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고 한다[11].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부 자본조달에 있어서 벤처캐피탈리스트는 CEO의 동일한 직장 출신관계를 중요시 하며[5, 12], R&D과제를 선정하는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최고 경영진들이 직연으로 연결 되었을 때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가 가능하므로 기업 성과를 더 잘 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5]. 이상과 같이 직연은 산업 현장에서 비추어볼 때 현실적으로 CEO의 대외 네트워크 활동에 있어서 커다란 교량적 결속 자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근거로 인적자원 중 직연을 독립변수의 한 부분으로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 2.1.2 학연에 대한 선행논문 연구

학연은 동일 학교의 동창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 사회의 3대 연줄이라 불리는 혈연(family), 지연(region), 학연(school) 중에서 학연은 개인이나 학벌 집단의 사회적 자본을 생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13]. 연구자도 학연은 우리나라 개인의 인적 결속의 중요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즉, 학연 관계가 우리사회 곳곳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을 목격해 왔으며 또한 기업의 성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가 참여했던 “경영자원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첨단기술벤처기업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분석 연구; 대덕연구 개발특구의 첨단기술벤처기업 사례분석과, 전략적 클러스터링을 위한 워킹그룹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대덕지역의 기업 간 비공식 네트워킹 조사결과 조사대상 340개 업체 중 학연 71.1%가 타 기업과 사회적 연계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신학교가 동일한 동창

관계의 관계정도가 KAIST, 한양대, 충남대, 한밭대, 고려대, 인하대, 동국대 순으로 제시된바 있다. 또한 최종 출신학교와 학과가 동시에 일치하는 관계만 추출했을 경우 48명의 노드와 30개의 링크가 관찰되었다[2]. 또한 대덕 지역의 기업들은 강한 연결망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 간 전략적 제휴와 사업파트너 연계에서 학연의 관계로 강한 연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한편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연 보다는 사내 네트워크 (intra-firm network)가 더욱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글로벌화와 정보화, 전문성의 발달로 학연의 연대의식이 줄고, 조직이 갖는 가치를 동료들이 공유하면서 생긴 조직 내의 사내 네트워크 중요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연구 사례도 있다[8]. 이상과 같은 학연에 대한 선행연구의 사례가 다양한 만큼 본 논문에서는 인적 결속 중 학연을 두 번째의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 2.1.3 지연(혈통/지인)에 대한 선행논문 연구

인적 결속 중 지연은 사람 사이 관계의 질과 관련된 것으로 신뢰, 의무 등을 포함 한다[15].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및 그밖에 자신이 소속된 사회적 공동체 또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일부 사람들 간에 신뢰관계를 형성한다[16]. 이러한 신뢰 속에서 관계의 강도는 개인이 자신의 파트너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17]. 인지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적절히 행동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관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16]. 그리고 혁신 주체간의 인지도와 네트워크의 개방성은 사업성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8].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인적인 인적 결속에 있어서 대부분 전통적인 연고주의를 기초로 하여 부모, 친지, 고향 친구, 동료, 지인 등과 같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주된 형태가 되고 있다. 지연은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나 감정적인 중요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19, 20]. 또한 직장이나 이웃사람, 종교 활동, 학연, 취미생활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16]. 가족, 친구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기업의 생존과 매출성장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21],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개인의 능력에 대한 기대치를 발생시킬 수 있다[22].

한편, 학연, 지연, 혈연의 클러스터 내에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다[7]. 그렇지만 혈연, 지연, 사내 네트워크를 활발히 할수록 네트워크 효과(정보접근, 경력후원)가 높다고 제시하고 있으며[8], 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는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식공유와 필요한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초기 창업자의 경우에는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16].

지연은 사회기부 및 클럽의 회원과 네트워크 형성이나 친척·친구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고[23, 24], 사회적 자본인 인지관계를 그리고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인 네트워크를 지연으로 구분하고 있다[25]. 또한 이러한 인적자원은 신뢰와 강한 연계성을 바탕으로 지연을 세분화 시키고 있다[26].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근거를 토대로 인적자원 중 지연을 세 번째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 2.2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논문 연구

기업의 경영성과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 성과를 이루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박은경(2013)은 경영성과의 개념을 국제화로 채택하고 있고[27], 국제화는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성과를 이루게 되며[28], 업무적·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 사업화나 국제화를 이룬다고 한다[29]. 최병훈(2009)은 결속형 자본(학연, 지연, 혈연)은 제품혁신, 공정혁신, 특허출원 등의 경영성과를 나타낸다고 정의하고 있다[7]. 서리빈 외(2012)는 기술혁신 성과를[30], 특허나 상표권을 채택하고 있다[31].

또한 학연, 직연, 지연 등의 인적자원에 의한 경영성과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로 구분하여 경영성과를 측정하고[5], 또는 경영혁신과 기업가적 성장을 경영성과로 측정하였다[32-33]. 그 밖에 기업경쟁력[34], 매출액[35-36], 기술·인력의 수요창출[37], 단순한 경영성과[38-40], 조직의 유효성[41], 고용성과[42], 조직개발, 경쟁과 경쟁적 우위[43], 부채와 자본비용, 직원 수, 연구개발 강도와 광고 강도[44], 기업규모와 수출 강도[45] 등 다양한 종류의 경영성과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의 중소벤처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성과의 개념을 정부지원 과제화

보, 경영개선, 기업성장 노하우 확보,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기업 경쟁력 강화(이하 ‘4차 산업관련 경쟁력강화’)의 4가지 요소를 측정항목으로 채택하였다.

### 3. 연구설계 및 실증분석

#### 3.1 연구설계

##### 3.1.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이론적인 배경의 검토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이 경영성파에 얼마만큼의 성과로 이어지는 지를 살펴보고자 Fig. 1과 같이 분석모델을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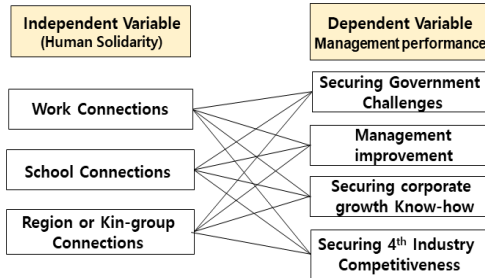


Fig. 1. Analytical Model

Table 1. A research hypothesis

Hypothesis No.	Contents
1	Work connections will affect the acquisition of government tasks.
2	Work connections will affect management improvement.
3	Work connections will affect the securing of corporate growth know-how.
4	Work connections will affect the reinforce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5	school connections will affect the acquisition of government tasks
6	school connections will affect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7	school connections will have an impact on securing corporate growth know-how.
8	school connections will affect the establish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9	Region or Kin-group connections will influence the acquisition of government tasks.
10	Region or Kin-group connections will influence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11	Region or Kin-group connections will have an impact on securing know-how in corporate growth.
12	Region or Kin-group connections will have an impact on securing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industry.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2개의 가설을 설정하였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1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설문조사 결과 얻어진 응답 자료의 신뢰성 입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값으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변수의 기술통계를 통해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고 독립변수의 인적결속의 요소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 3.1.2 연구변수의 측정항목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직연, 학연, 지연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의 변수들을 종속변수인 경영성파에 있어서 정부과제 확보, 경영개선, 기업성장 노하우 획득, 4차 산업관련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각각의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검증하기 위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 설문 문항에 대한 측정방법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Table 2. Measurement items of study variables

Variable	Symbol	An operational definition	Scale type
Work Connections	1-1	Help to join an association	A five-point scale
	1-2	Help in association activities	
School Connections	2-1	Help to join an association	A five-point scale
	2-2	Help in association activities	
Region or Kin-group Connections	3-1	Help to join an association	A five-point scale
	3-2	Help in association activities	
Management performance	4-1	The acquisition of government tasks	A five-point scale
	4-2	Management improvement	
	4-3	Corporate growth know-how	
	4-4	4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 3.2 실증분석

#### 3.2.1 기술통계

표본은 대전지역의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사)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사)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 (사)대전세종충남 수출기업협회, (사)미래CFO협회의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총 표본의 수는 212개 기업이며, IT기업 102개, BT기업 28개, NT·ST 8개, 환경관련기업 22개, 기타 52개로 다양하게 업종을 선별하였다. 또한 학력으로 학사이하 40.57%, 석사 27.36%, 박사 32.07%이며, 전직 경력으로 타사 경영 19.81%, 회사원 44.34%, 연구소 25.47%, 기타 10.38%로 이루어졌다. 또한 직연(75.5%), 학연(77.4%), 지연(86.8%)의 비율로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을 확인하였다.

#### 3.2.2 신뢰성 분석

신뢰성 검증은 측정하고자 하는 설문 문항별 개념이 응답자들로부터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동일한 개념에 대한 측정을 반복했을 경우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Table 3. Reliability verification results for each measured question

Factors	Variable	Cronbach alpha
	Measurement Questions	
Human solidarity	1-1) Work connections	.744
	2-1) School Connections	.739
	3-1) Region or Kin-group Connections	.760
Management performance	4-1) The acquisition of government tasks	.714
	4-2) Management improvement	.705
	4-3) Corporate growth know-how	.704
	4-4) 4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700

즉, 문항들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 일관성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방법은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의 통계를 사용한다. 보통 도출된 통계량이 0.60이상이면 측정문항들 간에는 내적인 일관성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0.60이상인 변수를 채택하였으며, 측정 문항별 신뢰성 검증결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항목이 0.60보다

높은 0.70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모든 설문 문항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2.3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분석

변수 간의 개략적인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onfiguration concepts

Sortation		The acquisition of government tasks			
		4-1	1-2	2-2	3-2
Human solidarity	4-1	1			
	1-2	.302***	1		
	2-2	.302***	.441***	1	
	3-2	.231***	.214**	.519***	1
Sortation		Management improvement			
		4-2	1-2	2-2	3-2
Human solidarity	4-2	1			
	1-2	.338***	1		
	2-2	.360***	.441***	1	
	3-2	.256***	.214**	.519***	1
Sortation		Corporate growth know-how			
		4-3	1-2	2-2	3-2
Human solidarity	4-3	1			
	1-2	.331***	1		
	2-2	.464***	.441***	1	
	3-2	.321***	.214**	.519***	1
Sortation		4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4-4	1-2	2-2	3-2
Human solidarity	4-4	1			
	1-2	.360***	1		
	2-2	.311***	.441***	1	
	3-2	.219***	.214**	.51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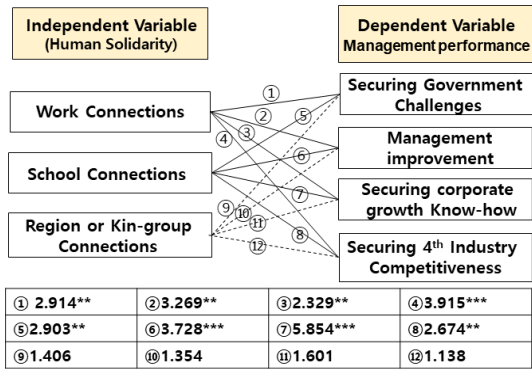
Note. \*\*p<0.01, \*\*\*p<0.0001

#### 3.2.4 가설검증

대전지역 중소벤처기업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이 경영성파에 미치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Fig. 2와 같다.

우선 최고 경영자의 인적결속의 하나인 ‘직연’은 경영성파에 있어서 정부과제 확보(2.914\*\*), 경영개선(3.269\*\*), 기업성장에 필요한 정보획득 (2.329\*\*), 4차 산업관련 경쟁력확보(3.915\*\*\*)의 모든 요소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연도 경영성파인 정

부과제 확보 (2.903\*\*), 경영개선(3.728\*\*\*), 기업성장에 필요한 정보획득(5.584\*\*\*), 4차 산업관련 경쟁력 확보(2.674\*\*)의 모든 요소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ote. \*\*p<0.01, \*\*\*p<0.001

Fig. 2. Validation Result of Research Model

하지만 지연은 경영성과인 정부과제확보(p=0.161>0.05) · 경영개선(p=0.177>0.05) · 기업성장에 필요한 정보획득(p=0.111>0.05) · 4차 산업관련 경쟁력 확보(p=0.256>0.05)의 모든 요소가 유의수준(p<0.05)을 벗어나고 있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Table. 5와 같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configuration concepts

Hypothesis and Path	A stand-ard error	$\beta$	C.R(t)	p	Adopti-on status
1 <b>Work connections</b> → The acquisition of government tasks	.041	.210	2.914	.004	Adopti-on
2 → Management improvement	.035	.223	3.169	.002	Adopti-on
3 → Corporate growth know-how	.037	.157	2.329	.021	Adopti-on
4 → 4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039	.277	3.915	***	Adopti-on
5 <b>School connections</b> → The acquisition of government tasks	.043	.029	2.903	.004	Adopti-on
6 → Management improvement	.037	.262	3.728	***	Adopti-on
7 → Corporate growth know-how	.039	.395	5.854	***	Adopti-on
8 → 4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041	.189	2.674	.008	Adopti-on

	Region or Kin-group connections				
9	→ The acquisition of government tasks	.050	.106	1.406	.161 Dismissal
10	→ Management improvement	.043	.100	1.354	.177 Dismissal
11	→ Corporate growth know-how	.045	.113	1.601	.111 Dismissal
12	→ 4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048	.084	1.138	.256 Dismissal

유의수준 \*\*\*p<0.01

#### 4. 토의 및 시사점

2000년 하반기 국내에 불어 닥친 ‘벤처거품론’, ‘닷컴 위기’, ‘도덕적 헤이’ 등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46]. 그렇지만 대덕의 기업들은 기술기반의 벤처기업들로 위와 같은 경영난 속에서도 대덕의 기업들은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설립되면서 첨단기술의 벤처기업들은 대덕특구의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성장발전 해왔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최고 경영자들은 부족한 경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 결속인 ‘직연’, ‘학연’, ‘지연’ 등을 동원해 왔다. 최고 경영자가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의 수가 많고, 소속된 모임이 많을수록 그리고 높은 수준의 기업들과 연계를 맺을수록 경영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된바 있고[2], 혈연, 지연, 사내 네트워크 강화는 정보접근이 용이하다는 주장도 있다[8]. 또한 대덕특구 소재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최고 경영진의 ‘직연’과 ‘학연’의 연구에서 정부의 R&D과제 선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되었다[5]. 본 연구에서는 대덕특구에서 대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최고경영자들의 인적 결속인 ‘직연’과 ‘학연’에 ‘지연’을 추가하여 실제적으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지역의 중소벤처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인적 결속인 ‘직연’ · ‘학연’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즉, 대전지역의 경우 최고 경영자들은 경영성과를 이루기 위해 ‘직연’과 ‘학연’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전지역에 대덕특구라는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선행연구

자[5]의 정부 R&D과제 선정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도 일치하는 연구결과였다.

둘째, 최고경영자의 인적결속 변수 중 하나인 ‘지연’은 경영성과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선행 연구자에 의하면 혈연, 지연, 사내 네트워크 강화는 정보접근에 부각된다고 주장하지만[8]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의 경우 상충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 원인이 최고 경영자가 대외 활동에 있어서 서로 간의 관심과 관계성에 있어서 단순하게 인지적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것인지, 아는 사이로 상호 신뢰가 부족해서 인지 아니면 상호 심각한 경쟁관계가 있어서 인지 추가적인 연구와 해석이 요구된다.

대전지역에 중소벤처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인적 결속을 위해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수는 적은 편이다.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최고경영자의 인적결속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직연’과 ‘학연’이 경영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단순한 비즈니스 형태의 인적 결속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고도화된 전략적인 인적결속으로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초연결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최고 경영자들은 끊임없이 인적 결속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최고 경영자의 인적결속에 있어서 ‘지연’부분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확인 되었다. 인지적 차원에서 볼 때 대전지역의 최고경영자 상호간에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4차 산업사회는 모든 경계를 허무는 융합의 사회로 상호간의 연계협력이 필수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들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강한 연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행논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인’ 간의 강한연결은 정보접근성과 경력후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전지역의 최고 경영자들은 ‘지인’ 간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전지역에는 다양한 중소벤처기업 협회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협회들은 최고 경영자들이 관계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최고 경영자들 간의 접촉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업경영의 부족한 자원을 외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직연’이나 ‘학연’, ‘지연’을 모두 동원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네트워크의 시작은 상호간의 관심과 관계성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영자원 확보의 통로를 적극 넓혀 가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협회들은 구성원들에게 상호간의 인적결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성화 시켜야 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대전지역 중소벤처기업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실증적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업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혁신클러스터의 운영기관 등에 필요한 정책 제언도 제시되었다. 최고 경영자의 인적결속인 전 직장의 ‘직연’(동일 직장연고), 학연(동문, 동창관계), 지연(지인, 혈연관계, 연고)에 대한 실증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첫째, 최고 경영자의 인적결속의 하나인 ‘직연’은 경영성과에 있어서 정부과제 확보(2.914\*\*), 경영개선(3.269\*\*), 기업성장에 필요한 정보 획득(2.329\*\*), 4차 산업관련 경쟁력 확보(3.915\*\*\*)의 모든 요소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의 전 직장에서 연고 관계인 ‘직연’의 경우 상호간에 교류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둘째, ‘학연’도 경영성과인 정부과제 확보(2.903\*\*), 경영개선(3.728\*\*\*), 기업성장에 필요한 정보 획득(5.584\*\*\*), 4차 산업관련 경쟁력확보(2.674\*\*)의 모든 요소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연’의 경우 경영성과인 정부과제확보( $p=0.161>0.05$ )·경영개선( $p=0.177>0.05$ )·기업성장에 필요한 정보획득( $p=0.111>0.05$ )·4차 산업관련 경쟁력 확보( $p=0.256>0.05$ )의 모든 요소가 유의수준( $p<0.05$ )을 벗어나고 있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전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인적 결속 중 ‘직연’, 과 ‘학연’은 경영성과에 영향이 있음을 뚜렷하게 입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의 변수를 다양화하지 못하고 ‘직연’, ‘학연’, ‘지연’ 만을 채택한 점과 매개변수 등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시사점을 얻는데 그치고 있어 향후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과 매개변수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전지역의 혁신클러스터의 주체인 협회별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 협회별 실증사례 분석 등은 추가적으로 연구할 과제이다.

## References

- [1] C. D. Kim, “60 Years in Daedeok Special District”, pp.118-126, INNOPOLIS Foundation, 2013.
- [2] K. S. Min, Y. K. Lee, J. C. Park, “A Study on the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of High-Tech Venture Companies for Efficient Management Resources: A Case Study on the High-Tech Venture Business in Daedeok Innopolis”, *The Journal of Management*, Vol.21, No.6, pp.2523-2547, 2008.
- [3] J. S.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4, pp.S95-S120, 1988.  
DOI: <https://dx.doi.org/10.1086/228943>
- [4] T. Healy, S. Cote,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pp.118, Paris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1.
- [5] J. G. Kim, “Study on Effects of Human and Social Capitals of CEOs in Relation to External Funds Application and Initial Marketing Accomplishment; focused on high-tech venture enterprises in Daeduck innopolis”, Daejeon University, Doctor’s thesis, 2014.
- [6] R. M. Dong, J. J. Lee, “The Effects of Human Capital and Integration Capacity of Complex Resort on Business Transformation, Competitive Advantage and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29, No.6, pp.45-54, 2015.
- [7] B. H. Choi, “The study of the influences of social capital and structural factors on innovative performance in industrial clus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Doctor’s thesis, 2009.
- [8] J. P. Choi, “A Study on On-Offline Social Network Affecting Job Performance and Career Success”, Kookmin University, Doctor’s thesis, 2012.
- [9] Y. H. Kim, “Social Network Theory”, Byub Moon sa, 2011.
- [10] H. K. Lee, “Regionalism”, Park Young sa, 2003.
- [11] Y. M. Kim, “Top management team social capital and its impacts on firm exit from the KOSDAQ market: Evidence from venture startup companies”, *Journal of Strategic Management*, Vol.10, No.2, pp.71-89, 2007.  
DOI: <https://dx.doi.org/10.17786/jsm.2007.10.2.004>
- [12] Y. K. Choi, S. W. Chung, J. S. Lim, “Venture Capital as a Linkage between the Founder and the IPO”, *Korean Academy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Vol.35, No.3, pp.87-114, 2011.
- [13] Y. H. Kim, “Alumni Groups and School Network”, *Other publications of the Journal of sociology*, pp.53-68, 2003.
- [14] D. G. Jang, “Working Group Study for Strategic Clustering Report”, Daedeok INNOPOLIS, 2008.
- [15] J. Nahapiet, S. Ghoshal,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3, No.2, pp.242-266, 1998.  
DOI: <https://dx.doi.org/10.5465/amr.1998.533225>
- [16] S. B. 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 Social Capital on Start-up Performances mediated by Nascent Entrepreneur’s Behaviors”, Konkuk University, Doctor’s thesis, 2013.
- [17] M. A. McFadyen, A. A. Cannella, “Social Capital and Knowledge Creation: Diminishing Returns of The Number and Strength of Exchange Relationship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7, No.5, pp.735-746, 2004.
- [18] T. H. Nam, “The Effect of the Network Characteristics and Firm Performance on the Regional Innovative Cluster Performance”, Kyungil University, Doctor’s thesis, 2013.
- [19] A. Smidts, A. T. H. Pruyn, C. M. Van Riel, “The Impact of Employee Communication and Perceived External Prestige 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4, No.5, pp.1051-1062, 2001.  
DOI: <https://dx.doi.org/10.5465/3069448>
- [20] Y. N. Rhee,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nd the Role of Public Relations : An Exploratory Study of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Trust, Norm, and Identif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Vol.9, No.4, pp.46-70, 2007.
- [21] J. H. Lee, D. H. Lee, S. Y. Park, “A Study Upon Effects of Firm Reputations and Network Types in Firm Performances”, *Asia Pacific of small Business*, Vol.34, No.1, pp.121-138, 2012.
- [22] J. Sequeira, S. L. Mueller, J. E. Mcgee, “The Influence of Social Ties and Self-Efficacy in Form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Motivating Nascent Behavior”,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Vol.12, No.3, pp.257-293, 2007.  
DOI: <https://dx.doi.org/10.1142/S108494670700068X>
- [23] N. T. B. Le, T. V. Nguyen, “The Impact of Networking on Bank Financing: The Cas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Vietnam”,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3, No.4, pp.867-887, 2009.  
DOI: <https://dx.doi.org/10.1111/j.1540-6520.2009.00330.x>
- [24] M. Westerlund, S. Svahn, “A Relationship Value Perspective of Social Capital in Networks of Software SMEs”,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Vol.37, No.5, pp.492-501, 2008.  
DOI: <https://dx.doi.org/10.1016/j.indmarman.2008.04.003>
- [25] T. S. Manolova, N. M. Carter, I. M. Manev, B. S. Gyoshev, “The Differential Effect of Men and Women Entrepreneurs’ Human Capital and Networking on

- Growth Expectancies in Bulgaria”,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5, No.3, pp.407-426, 2007.  
DOI: <https://dx.doi.org/10.1111/j.1540-6520.2007.00180.x>
- [26] D. M. De Carolis, P. Saparito, “Social Capital, Cognition,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A Theoretical Framework”,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0, No.1, pp.41-56, 2006.  
DOI: <https://dx.doi.org/10.1111/j.1540-6520.2006.00109.x>
- [27] E. K. Park,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Network Capabilities on International Performance of Korean Firm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s thesis, 2013.
- [28] J. H. Ryu,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Networking Activities on the Enterprise Performance”, Soongsil University, Doctor’s thesis, 2013.
- [29] S. S. Ryu, “The Effects of Network Types and Relational Factors on the Learning and Performance in Corporate”, Chosun University, Doctor’s thesis, 2011.
- [30] R. B. Seo, J. S. Sung, H. D. Yoon, “The Effects of Collaborative R&D Network and Entrepreneurship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y and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in Industrial Cluster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Vol.15, No.3, pp.43-68, 2012.
- [31] D. K. Lee, M. K. Choi, “The Relation of Internal Competenc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xternal Network and Organizational Culture in SMEs”,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Vol.2012, No.2, pp.1-42, 2012.
- [32] N. O’Regan, A. Ghobadian, M. Sims, “Fast tracking innovation in manufacturing SMEs”, *Technovation*, Vol.26, No.2, pp.251-261, 2006.  
DOI: <https://dx.doi.org/10.1016/j.technovation.2005.01.003>
- [33] T. S. Manolova, N. M. Carter, I. M. Manev, B. S. Gyoshev, “The Differential Effect of Men and Women Entrepreneurs’ Human Capital and Networking on Growth Expectancies in Bulgaria”,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5, No.3, pp.407-426, 2007.  
DOI: <https://dx.doi.org/10.1111/j.1540-6520.2007.00180.x>
- [34] E. Sung, “Does Volunteerism Affect Innovative Performance &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in innovative Cluster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Vol.10, No.4, pp.691-707, 2014.  
DOI: <https://dx.doi.org/10.16980/jitc.10.4.201408.691>
- [35] C. S. Lee, T. W. Roh, “The effect of support programs for innovative clusters by stage of growth on firm performance”, *Regional Industry Review*, Vol.38, No.2, pp.7-28, 2015.
- [36] D. D. Clercq, D. Rangarajan, “The Role of Perceived Relational Support in Entrepreneur - Customer Dyad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2, No.4, pp.659-683, 2008.  
DOI: <https://dx.doi.org/10.1111/j.1540-6520.2008.00247.x>
- [37] Y. C. Jung, S. J. Lee, “A Study on Growth and Development Impact Factors for Innovation Cluster: A Case of the Daedeok Innopolis”,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4, No.1, pp.189-219, 2016.  
DOI: <https://dx.doi.org/10.14383/SIME.2016.24.1.189>
- [38] K. W. Lee, “The Effect of Strength of Ties and Diversity of Ties in the Venture Business Networks on the Venture Business Performance”, Seoul University of Venture & Information, Doctor’s thesis, 2009.
- [39] B. N. Kim, “The Effect of SME’s Characteristics and Growing Pains on Business Performances”, Hoseo University, Doctor’s thesis, 2014.
- [40] H. Y. Yook, “Empirical research on the business performance: Focused on the conceptual characteristics”,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Doctor’s thesis, 2016.
- [41] S. B.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CEO and Competency in Venture Companies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Including the Mediating Effect of Corporate Strategy”, Hoseo University, Doctor’s thesis, 2013.
- [42] H. S. Won, “An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 of S&M Business CEOs’ Entrepreneurship: Focusing on the mediation Social Capital”, Gachon University, Doctor’s thesis, 2013.
- [43] C. T. Street, A. F. Cameron, “External Relationships and the Small Business: A Review of Small Business Alliance and Network Research”,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45, No.2, pp.239-266, 2007.  
DOI: <https://dx.doi.org/10.1111/j.1540-627X.2007.00211.x>
- [44] A. Goerzen, P. W. Beamish, “The effect of alliance network diversity on multinational enterprise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26, No.4, pp.333-354, 2005.  
DOI: <https://dx.doi.org/10.1002/smj.447>
- [45] L. C. Hsu, C. H. Wang, “Clarifying the Effect of Intellectual Capital on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 of Dynamic Capability”,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Vol.23, No.2, pp.179-205, 2012.  
DOI: <https://dx.doi.org/10.1111/j.1467-8551.2010.00718.x>
- [46] Y. H. Kim, K. H. Han, K. B. Lee, “Venture Networks of Resource Mobil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ocial Sciences*, Vol.36, No.4, pp.89-121, 2002.

이 윤 구(Yoon-Koo Lee) [정회원]



- 2009년 2월 : 한밭대학교 창업경영 대학원 창업학과 (창업학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박사과정)
- 2012년 8월 ~ 2017년 2월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 2018년 3월 ~ 현재 : 우송대학교 매니지먼트학부 경영학전공 교수

<관심분야>

기술창업, 기술경영, 기술사업화, 기술평가, 혁신클러스터

현 병 환(Byung-Hwan Hyun)

[정회원]



- 2015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융합건설탐학과 (교수)
- 2004년 1월 ~ 2013년 12월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 연구센터장
- 2006년 1월 ~ 2015년 12월 : UST 기술경영 정책학 교수
- 2010년 1월 ~ 현재 : 기술경영경제학회 부회장
- 2017년 1월 ~ 현재 : 혁신클러스터학회 회장
- 2019년 1월 ~ : 한국기술혁신학회 회장

<관심분야>

기술경영, 연구전략기획, 기술사업화